

현안사업 해결 위한 지원 요청

전춘성 진안군수, 이상민 행안부장관 만나 특별교부세 적극 건의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군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전 군수는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 조성, △군립 자연 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 조성은 진안군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안읍 학천지구 내에 조성 예정인 문화예술회관과 지혜의 숲 도서관 부지 앞에 진안고원 복합문화 광장을 조성해 군민의 문화·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또한 군립 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2027년 부근면에 개원 예정인 군립 자연휴양림 운영에 앞서 진입로를 확·포장하여 군립 자연휴양림 이용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에 건의한 사업



전춘성 진안군수(원쪽에서 네 번째)는 지난 1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원쪽에서 세 번째)을 만나 군의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들은 우리군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인 만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로컬푸드진안점·진안고원몰,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 기간 억대 매출 기록

진안군 직영 농산물 판매 매체인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오프라인)과 진안고원몰(온라인)이 지난 16일 ~17일까지 열린 ‘제6회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 기간 동안 매출액 1억 2,700만원을 기록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이번에 열린 ‘진안고원 김치보쌈 축제’는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으로 행사장을 소변해 운영했으며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맛있는 먹거리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에서는 축제기간 동안 ‘김장재료 기획



조했다. 온라인에서는 ‘진안고원몰’이 김치보쌈축제와 연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김치, 꽈지고기 세트 상품을 판매해 작년에 이어 큰 인기를 끌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김치보쌈축제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열려 소비자들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매장과 쇼핑몰 활성화 방안 강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송현옥 세종대 교수 특강 ‘연극으로 세상 읽기’

지난 18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는 군민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인문학 특강이 실시됐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가 주관한 이날 특강에서는 세종대학 교 영화예술학과 송현옥 교수가 “연극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송 교수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부터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



기까지 시대상을 반영한 연극의 개념과 역사, 극에 대한 이해와 해석 등을

삶에 비유하며 풀어놔 관심을 모았다. 학교에서 연극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한 학생은 “연극이 좋아서 친구들하고 연습과 공연 등 동아리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연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좋았다”라며 “교수님이 연출하신 연극도 영상으로 봤는데 언어로만 전달하는 연극이 아닌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새로운 장르를 접한 느낌이어서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 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친환경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6

농기계 임대사업 ‘매우 우수’

장수군, 전국 종합평가서 선정… 인센티브 국비 1억원 확보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전국 농업기계 임대사업 종합 평가’에서 ‘매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사업 종합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전국 14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평가에서 군은 밭농사용 농기계 비율, 주산지일관기계화 지원사업 선정, 농기계 대량 임대일수 등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항목 20개 중 절반 이상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군은 인센티브로 국비 1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고 확보된 사업비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및 의견 수렴 후 영농활동



에 필요한 다양한 농기계를 구비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인구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해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부담을 덜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농민들이 영농비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 다각적 노력

진안군은 올해도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섰다.

군은 지난 16일~17일까지 개최된 김치보쌈축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문화누리카드 축제 기행점을 운영하며 축제 기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이 축제 문화를 향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진안고원몰(진안군 직영 온라인쇼핑몰)’과 연계해 통신판매를 운영하며 1,000여 명이 이용했다. 더불어 문화누리카드 사용홍보를 위해 (재)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의 ‘찾아가는 문화장터, 체험’ 사업을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진안군은 문화누리카드로 다채로운 축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진안고원 윤장산고로쇠 축제(3월), 동향수박축제(7월), 흥삼축제(9월)에서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에게 축제문화를 제공하는 등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토셀 영어자격 시험 실시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재단의 초등 영어학습지원사업 토셀 교실에 참여 중인 학생 중 52명이 16일 ‘제86회 토셀 정기시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토셀은 한국인의 영어교과과정을 고려해 영어 구사 능력 증진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국제적 영어능력 인증 평가로 재단은 지난해부터 영어를 통한 문화다양성 습득 및 실질적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7개 읍면별 토셀 교실을 시행해 왔다.

이번 제86회 토셀 시험 스타터 과정에 응시한 학생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토셀 스타터 과정과 올해 상반기 베이직 과정 응시자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토셀 응시자는 총 132명에 달한다.

최훈식 이사장은 “앞으로도 재단의 영어학습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 안옥선 씨가 지난 18일과 19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전북문화관광해설사워크숍에서 한국관광공사장상을 수상했다.

무주군, 문화관광해설도 ‘으뜸’

안옥선 해설사, 관광 발전 이바지 공로 ‘한국관광공사장상’ 수상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 안옥선 씨가 지난 18일과 19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2024년 전북문화관광해설사워크숍에서 한국관광공사장상을 수상했다.

2010년 6월 무주군 주요 관광지 해설을 시작한 안옥선 해설사는 14년간 국가지질공원해설사와 전북천리길해설사로 활동하며 자연특별시 무주관광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문가적인 안목과 해설, 관광객들의 흥미를 사로잡는 구성진 입담으로 덕유산과 적상산, 태권도원, 반디랜드, 미루와인동굴 등 명소를 비롯해 무주별빛축제와 무주산골영화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의 ‘무주다움’을 각인시켰다는 찬사를 받았다.

안옥선 무주군문화관광해설사는 “무주가 전북특별자치도, 나아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자연특별시 무주가 꼭 오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진심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문화관광해설사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2024 문화관광해설사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된 것으로, 도내 시·군 문화관광해설사들과 담당 공무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역량 강화 특강을 비롯한 전문가 초청 강연, 14개 시군 해설사 역량증진 대회 및 스토리텔링 기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또 이 자리에서는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임세준 주무관이 해설사 업무 유공 도자기 표창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